

저무는 홈런시대…‘다운스윙’ 강제 소환

16일 기준 작년대비 홈런수 73개 감
양상문 감독 “홈런 타구 펜스서 잡혀”
비거리 줄자 어퍼스윙 대신 다운스윙

KBO리그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는 듯 했던 ‘어퍼스윙’은 큰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한국프로야구는 16일까지 정확히 100경기를 치렀다. 리그 홈런수는 159개, 안타는 1754개, OPS는 0.717다. 지난해 4월 17일까지 리그는 97경기를 소화했는데 홈런은 232개, 안타는 1871개가 나왔다. OPS는 0.783이었다. 반발력을 일본리그 수준으로 낮춘 새 공인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숫자의 변화다.

롯데 자이언츠 양상문 감독은 “모두가 새 공인구의 영향을 공감하고 있다. 홈런이 될 것 같은 타구가 마지막에 펜스 앞에서 잡힌다. 외야 관중석 상단을 때리는 큰 홈런도 거의 못 봤다”고 말했다. 그리고 “홈런 발사각도에 최적화된 어퍼스윙을 하는 타자들이 많은데 새 공인구의 비거리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어퍼스윙은 메이저리그의 플라이 볼 혁명과 함께 KBO리그에 전파됐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이에 대응하게 위해 다시 커브를 던졌고 하이 패스트볼을 가다듬고 있다. 홈런에 최적화된 발사각도로 스윙하는 타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진화였다. 어퍼스윙은 과거에는 교과서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따랐던 방법이다.

현역시절 리그를 대표하는 홈런타자였던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이 자신의 타격 이론을 설명하며 제법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교 시절 우리는 무조건 다운스윙으로 쳐야 한다고 배웠다. 어퍼스윙으로 치면 타구가 멀리 나간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치면 선배들에게 혼쭐이 났었다.”

완성도 높은 어퍼스윙을 갖고 있는 두산 베어스 최주환도 “고토 고지 전 타격코치가 나만의 방식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여전히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약점이 많은 스윙이다. 확률적으로 라인드라이브 타구가 안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퍼스윙은 뜬공에 최적화 되어 있는데 홈런 혹은 외야 깊숙한

코스가 아니면 플라이볼 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발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공인구의 변화는 다시 다운스윙을 주목하게 한다. 공을 내려찍는 스윙을 갖고 있는 롯데 전준우는 16일까지 리그에서 가장 많은 6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양상문 감독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히며 “다운스윙은 공에 더 많은 회전을 주기 때문에 반발력의 영향을 어퍼스윙보다 더 적게 받는다. 전준우가 많은 홈런을 치는 것도 같은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면 어퍼스윙의 장점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사석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키움 김하성

“포항에선 비디오판독 안돼요”
병살타 판정이 억울한 김하성

17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오심과 그를 바로 잡을 비디오판독에 관한 이야기다.

상황은 이랬다. 키움은 3회 1사 1·2루 상황에서 타석에 3번타자 김하성이 들어섰다. 김하성은 투수 백정현의 4구째를 타격했는데, 이 타구가 유격수 이학주 방향으로 굴러갔다.

이학주는 즉시 공을 잡아 2루수 김상수에게 송구했다. 유격수~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6-4-3 병살 플레이를 시도했다. 선행주자는 2루에서 잡혔지만, 김하성의 타구가 유격수 왼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1루에서는 접전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삼성 1루수 최영진이 힘껏 발과 팔을 뻗었으나 김하성의 발이 먼저 1루 베이스를 밟았다. 타이밍상 세이프를 확인한 김하성은 1루 베이스를 그대로 통과했지만, 1루심의 판정은 ‘아웃’이었다. 이로 인해 이닝은 그대로 종료됐다.

김하성은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참동안 1루 쪽에 머물렀다. 덕아웃을 바라보며 비디오판독을 기다렸다. 그러나 코칭스태프의 비디오판독 사인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인 자체가 나올 수 없었다.

포항구장은 삼성의 제 2구장으로 16일부터 키움과의 주중 3연전이 펼쳐지고 있다. 제 2구장은 시설 등의 문제로 비디오판독을 위한 KBO 자체 장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까지 방송사의 화면을 받아 비디오판독을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방송사와 KBO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비디오판독을 위한 화면을 심판진이 볼 수가 없다. 비디오판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김하성의 타구에서 비디오판독이 실시되지 않은 것은 코칭스태프의 판단ミス가 아니라 해당 영상 자체를 볼 수 없는 ‘특수 상황’ 때문이었다.

포항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안치홍 ‘슬라이딩 좋았어!’ KIA 타이거즈 안치홍(오른쪽)이 17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3회초 최형우의 안타 때 3루까지 내달려 세이프되고 있다. 롯데 3루수는 한동희.

올림픽·AG 없이도 잘 나가는 야구를 위하여

올림픽·AG 정식종목서 잇단 배제
한·일 올스타전 등 대안 마련 필요

이경호의 해피 존

야구는 국제무대에서 ‘비주류’ 종목이다. 2008년 베이징대회 이후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제외됐다. 야구가 국기인 일본이 2020 도쿄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했다면 올림픽 무대에 돌아오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개최도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희망하는 추가 종목을 제안할 권리를 갖고 있다. IOC는 개최 조직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승인한다. 도쿄는 야구와 함께 가라데, 서핑,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을 신청해 정식 종목으로 처리지게 됐다.

2024올림픽 개최지 파리는 예상대로 야구를 정식종목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파리가 원하는 새 종목은 브레이크댄싱이었다.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도

신청됐다.

야구가 올림픽무대에서 갖는 위상이 이렇다. 개최도시가 희망하지 않으면 제외되는 종목이다. IOC는 젊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올림픽무대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브레이크댄싱이 전략종목으로 꼽히는 이유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보이들의 댄스 매틀을 심사위원들이 점수로 평가해 승자를 정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반면 야구는 IOC의 어떠한 전략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8년 개최지 LA가 야구를 신청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LA올림픽 기간에 메이저리그가 시즌을 중단하고 정상급 선수들이 조국을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허락할 가능성은 반대로 매우 낮다.

메이저리그는 야구의 국제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러나 그 방식은 올림픽 등 국제종합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다. 각국의 리그 활성화 및 축구의 월드컵이 롤 모델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라는 국가대항전을 통한 국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구는 2020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에서도 일단 제외됐다.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도 야구는 마지막에 정식종목으로 추가 편성됐다. 한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국제무대에서는 참 처량한 신세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중동국가들이 장악하고 있다. 중동은 야구의 불모지다. 야구는 한국, 일본, 대만의 최고 인기 스포츠지만 아시안게임에 첫 선을 보인 해가 1994년 히로시마 대회였다. 큰 경기장이 필요하고 긴 경기시간, 몇 안 되는 참가국가 등 매력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야구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없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 메이저리그가 추구하는 방향과 함께 일본, 대만과 연계해 동아시아야구라는 새로운 국제무대를 흥행카드로 발전시켜야 한다. WBC, 프리미어12가 없는 해에 동아시아 최고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 창설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일본과 협의해 매년 여름 KBO리그, 일본프로야구 인기 선수들이 3연전을 치르는 한·일 올스타전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꼭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종목이어야 국제적인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럭비는 월드컵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손꼽히는 인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20개 국만 본선에 초청되는 럭비 월드컵은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한다.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의 시청자가 TV로 월드컵 결승전을 보는 럭비는 야구가 따라가야 할 좋은 모델이다.

rush@donga.com

해즐베이커 퇴출 위기…최진행 1군 등록

〈KIA〉

〈한화〉

17일 게임 브리핑

●…두산 베어스 ‘대체 선발’ 홍상삼이 기대 이상의 호투에도 승리 투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왔다. 1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웬스 트링 부상을 입은 이용찬의 대체 선발로 등판해 4.2이닝 3실점 5안타 5삼진 2볼넷을 기록했다. 승리 투수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지 못했다.

●…두산 김태형 감독은 잠실 SK 와이번스전에 앞서 “당분간 선발 2루수는 (류지

아저 담장을 넘겼다. 시즌 6호 아치.

●…KT 이강철 감독은 한화전에 앞서 재할 중인 이상화에 대해 “계획대로면 6월에 돌아올 것 같다”고 밝혔다. 2017년 팀의 핵심 셋업맨으로 활약한 이상화는 지난해 오른 팔꿈치 뿔조각과 석회질 제거 수술을 받고 시즌아웃됐다. 최근 재활군에서 볼펜 피칭을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은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 앞서 2군에 내려가 있는 외국인 타자 제레미 해즐베이커에 대해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1군에서 11경기 41타수 6안타(타율 0.146) OPS 0.580을 기록한 뒤 엔트리에서 제외된 해즐베이커는 2군에서 8게임에 나서 14타수 3안타(타율 0.214) OPS

0.833을 기록 중이다. 이날 군산에서 열린 퓨처스리그 KT 위즈전에서는 컨디션 난조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롯데는 투수 홍성민, 정성종을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대신 투수 이인복, 김건국을 2군으로 내려보냈다. 시즌 첫 1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이드암 홍성민은 퓨처스리그 6경기에서 9.2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0.93을 기록했다.

●…한화 최진행이 시즌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대신 오른쪽 뒷목에 담증세가 온 외야수 장진혁은 1군 엔트리에서 제외돼 재활군으로 내려갔다. 최진행은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막판 왼쪽 복사근 부분 손상으로 조기 귀국한 뒤 재활군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왔다.